

계획작품 blue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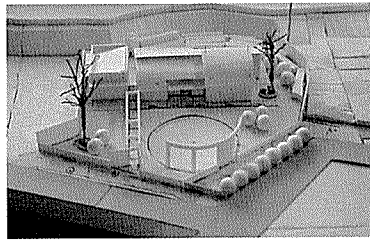
귀여리 주택

태평양시대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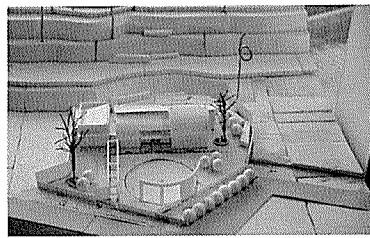
귀여리 주택

Guiyeori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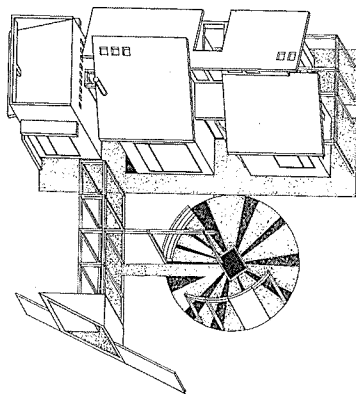
김희곤 / 흥간건축



모형 1



모형 2



위 치	경기도 광주군 귀여리 303번지
대지면적	744.0㎡
지역지구	도시, 자연녹지, 개발제한, 상수원보호
건축면적	주택 : 99.06㎡ 창고 : 29.70㎡
연 면 적	주택 : 99.06㎡ 창고 : 29.70㎡
건 폐 율	17.30%
용 적 륜	17.30%
규 모	지상1층
최고높이	5.10m
용 도	주택, 창고
도 로	2.5m, 3.5m도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참여자	원윤정, 박주환

빛과 녹색의 공존

현대인에게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정주자를 위한 주택인가? 노마드를 위한 주택인가?

이 주택은 노마드와 정주자의 중간에 있으며 사회의 정보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기를 기대했다.

마음이 따뜻한 중년부부를 위한 주말주택이 아니라 생활하는 삶의 공간이다.

처음부터 관념적인 형태조작보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재편집하는 그 가슴벅찬 순간에서부터 어딘가 삶의 또다른 향기와 인생의 근원이 다시 만져지는 확실한 공간을 현대의 도시인에게 꿈으로 되 돌려주고 싶었다. 과거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의 밑거름 속에서 과거의 맛이 배어서 미래에 대한 강한 욕구와 삶의 건강한 추진력이 생기길 원했다.

형태의 현대적·기하학적 조작에 대한 의미보다는 태양과 녹색에 대한 소박한 욕구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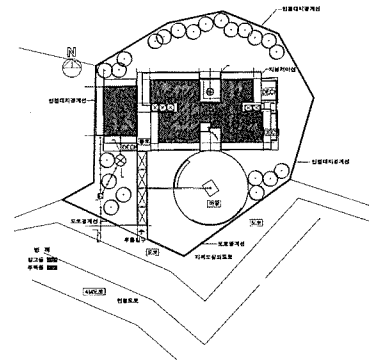
이 주택의 주된 관심사는 서울의 생활무대, 즉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노년을 보내는 주거가 아니라 삶의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매스와 매스가 만나는 사이 공간과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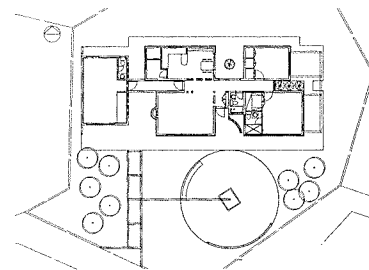
의 높낮이 조절에 의한 수평공간의 다층화 그 틈새로 투과되는 빛의 변화에 의한 공간의 변화를 유도했다.

내부의 오픈 스페이스와 외부의 돌담길, 미당의 형태적 현대화로 일년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퍼포먼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삶이 더욱 풍족하고 재미있게 연출되길 기대했다. 낮의 빛과 녹색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특히 밤의 인공적인 빛에 대해서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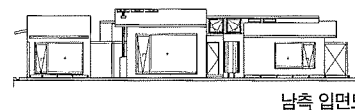
도시의 자기파시의 빛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박하지만 축복하는 빛에 의해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길 기대한다. 건물이 작은 자연이고 또 큰 자연의 일부로 연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지만 삶의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싶은 주택이다. (글 : 김희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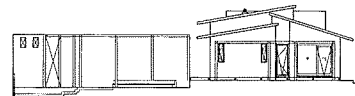
배치도



평면도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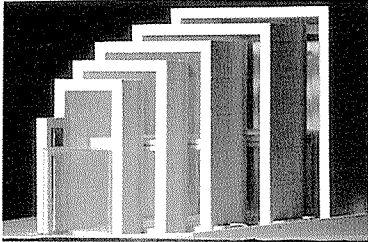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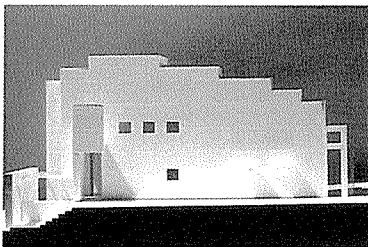
태평양시대 위원회

Pacific Age Committee Center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모형1



모형2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9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371.9㎡
건축면적	62.64㎡
연 면 적	212.69㎡
건 폐 율	59.81%
용 적 륜	109.65%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8.4m
층 고	2.4~4.5m
주요설비	패널히팅
주요용도	문화시설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주차대수	3대
조경면적	19.48㎡
설계담당	허진성, 차기팔
모 형	이종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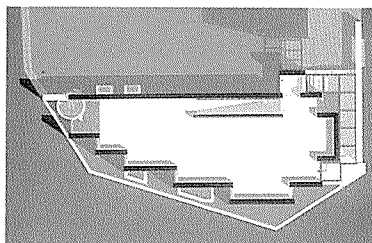
금화터널을 나와 세브란스로 내려가는 도중에 연세대의 후문으로 통하는 골목 길에 있다. 후문 못미처 김동길 박사의 태평양시대 위원회로 쓰이는 주택건물이 있고 그 앞마당에 이 공간이 세워진다.

김옥길 이화여대 전총장과 함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김박사는 차를 마시고 그림을 보며 때때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원하였다. 이왕의 살림채를 뺀 나머지 여유는 18평, 이층을 만들고 지하는 조금 넓게 파기로 하였다. 주인은 희망만 이야기하였을 뿐 아무런 주문도 그리고 조건도 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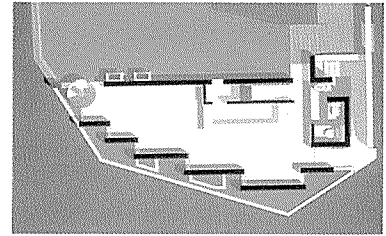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열린 벽들을 세웠다. 안채와 나란히 큰 벽에 의지하여 키다른 작은 벽돌이 틈을 만들어 길을 향하고 있다. 막힘과 열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을 위해 콘크리트와 유리 외에는 모두 억제되었다. 프레임까지 생략된 극소의 디테일로 건축의 물성(物性)을 무성화(無性化)시키려 했다.

공간의 열개만으로 역할하는 벽은 틈을 만드는 장치일 뿐이다. 열림으로 인해 스며들거나 배어나갈 무형의 공간으로 건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가두어지지 않는 공간을 가두려 애쓰기보다 풀려난 공간의 영역이 방해받지 않고 무한히 확장되었으면 한다. 크기를 초월하는 것은 크기를 없이는 것이다. 18평 공간의 구체적인 크기와 상징적인 의미의 크기를 대비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치밀하게 고려된 의도보다 비록 우연이었다 할지라도 예정되지 않은 결과에 의한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단순함과 쉬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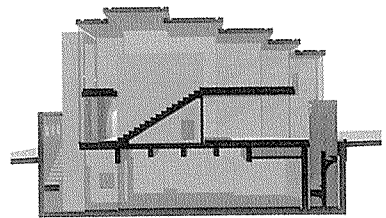
주인의 희망은 대지를 제공하고 비용을 마련한 당신에게 설계자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또 주문하기를 2096년에도 누구누구의 작품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2096년에도 남아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누군가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집으로 불리우고 있을 것이라 장담하였는데 김박사는 방긋이 웃기만 하였다. <글 : 김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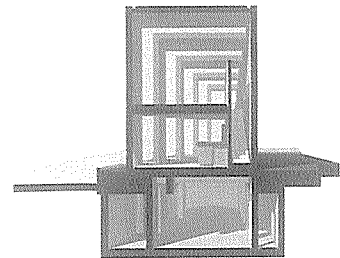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